

# “各黨 과학기술발전戰略제시”

정당大統領후보초청 과학기술政策대토론회 개최  
 科總, 토론결과集約 관계요로에 建議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1월18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民自 民主 國民 등 3당 大統領후보를 초청, 21세기 과학기술도약을 위한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했다.

閔寬植명예회장, 金東一상임고문등 과학기술계인사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대토론회에는 민주당에서 金大中후보가 직접 나와 특강을 했으며 민자당에서는 金鍾泌대표최고위원이, 국민당에서는 鄭周泳후보를 대신해 尹榮卓정책위의장이 특별강연을 통해 과학기술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서 과학기술계를 비롯 산업계, 언론계 대표들과 각당이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科總은 이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서를 작성, 관계요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연사로 나선 民主黨의 金大中후보는 民主黨은 5년내에 「경제 8強」을 이룩하고 과학기술투자를 GNP대비 5%로 증대하여 先進과학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하고 ▲大統領직속기관으로 「과학기술연구조정·평가



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강화 ▲대중계몽운동을 위한 「과학문화진흥원」 설립 ▲「정보화사회 종합계획 연구단」 발족 ▲정보산업단지 조성 ▲공해심의기구 구성운영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國民黨의 鄭周泳후보(尹榮卓정책위의장 代讀)는 국민당은 과학기술우위의 정책이란 대원칙을 세우고 이를 일관성있게 실천해 나갈으로써 「과학기술韓國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과학기술투자를 향후 10년간 정부예산의 10% 수준으로 확대 ▲지방공단내에 지역특성에 맞는 정부출연연구소 분소설치 ▲대학교수의 기초연구비 매년 10%씩 증액 ▲환경기술개발투자율 제고 및 代替에너지개발

촉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民自黨의 金鍾泌 대표최고위원은 2천년까지는 과학기술선진7개국권에 진입한다는 기본목표아래 ▲현재 추진중인 G7과제를 국가과제로 지정하고 大統領이 직접 관리 평가하는 한편 ▲대학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지원민간협의회」구성 운영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특별조치법」 제정 ▲과학기술정보체계구축을 위한 「국가종합과학기술정보원」설립 ▲현 科技處를 부총리급으로 격상 ▲청와대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해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개발에 신이 나서 ‘魂과 生命’을 다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申鎮旭 경제과학위원장을 비롯 柳峻相의원등 국회의원과 金基衡, 權彝赫씨등 前職장관, 朴泰源인하대 명예총장 李海成한양대총장 徐廷旭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 학계·연구기관대표와 金宗殖대한수학회회장등 科總산하 회원단체장등 관계인사 7백여명이 참석했다.

# 「韓·러 경제科技共同委」 구성

양국부총리 서명, 定例회담 개최합의

## 科技협력확대·資源공동개발

韓·러시아 양국은 내년부터 경제담당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차관들로 구성된 「韓·러 경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두나라간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통상장관회담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중 첫번째 정례회담을 모스크바에서 열기로 했다.

崔珥圭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1월20일 오전 果川정부청사에서 보리스·엘친 러시아 대통령을 수행중인 쇼힌 대외경제담당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교역협작투자, 자원공동개발, 과학기술협력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양국 부총리들은 이날 회담에서 「韓·러 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서명, 이 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韓·러 공동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1회씩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교대로 개최, 무역과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자원 투자등 각 분야에서 양국간 經協관계

를 확대 발전시키고 경제교류 추진에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1차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중 서울 또는 모스크바에서 열려 이번 韓·러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경제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情報산업 8대과제 선정

매년 育成기금 1천억 조성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정보산업을 선진국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기기 정보통신망 등 8개분야별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정보산업육성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정보산업육성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산업기획단(단장 康奉均 경제기획원차관보)은 11월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NSII)」시안을 마련,이날 韓國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공청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등을 거쳐 연내 전략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시안은

8개 전략과제로 △정보기기 △정보통신망 △산업정보화△소프트웨어기술 △금융업 물류등 사회기반구조의 정보화 △사회정보화 △전문인력 △신기술창업기업등을 선정하고 금융 및 세계상의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보산업의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컴퓨터리사회사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유통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實用化사업단」발족

기술알선·創業 지원도

과학기술처는 12월9일 한국종합기술금융(주)내에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립, 현판식을 갖고 기술알선·위탁개발·창업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과기처에 따르면 이 사업단은 ▲정부출연연구소·대학 등의 연구성과를 민간에 이전,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형 新企業의 창출을 지원하며 ▲신기술 정보의 보급과 기술시장활성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국공립연구소·대학·기업 및 해외의 기술이전기관·기업연구소가 갖고 있는 기술을 조사해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알선하거나 추가개발토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화자금과 함께 마케팅·경영컨설팅을 해주면서 창업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加원자로設計기술 韓國이전 合意

## 美 차세대원자로연구에도 참여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 50명을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 파견, 캐나다의 重水爐형 원자로설계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제10차 韓加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앞서 18일부터 20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4차 韓美원자력 및 기타에너지공동상설위원회에서 韓美양국은 美國이 개발중인 차세대원자로인 프리즘액체금속원자로 연구사업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을 내년부터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또 한국측이 제의한 차세대원자로용 신형 核燃料의 공동개발에도 합의했다.

韓美 및 韓加 원자력공동위원회에는 韓國측에서 과기처 洪載熹원자력실장을 수석으로 9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 安息年 확대 · 創業지원 出捐연구원 처우개선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성과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는 인센티브배분제도를 강화하고 연구원 안식년제도 확대실시 및 창

업지원제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열악한 환경으로 최근 출연연구소의 연구분위가 침체돼 있다고 판단, 앞으로 연구원중심의 기관운영체제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복지수준을 제고,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총연구비의 5%내에서 개발보전비를 인정, 연구원 인센티브제 재원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

정을 개정해 기술료수입을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센티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인해 추가확보된 재원은 약 20억원에 이른다.

과기처는 연구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연구원창업지원제도를 확대, 원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허실시권을 허용하고 연구개발기 자체 및 시설을 영가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구원의 연구능력개발과 선진기술습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개연구기관에서 시행중인 연구원의 연구연가(안식년)제도를 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 駐在과학관 파견합의

### 韓 · 中 科技장관회담서 양해각서 교환

金鎮炫 과학기술처장관과 宋健 中國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은 11월 26일 과기처 상황실에서 韓 · 中 과학기술장관회담을 갖고 △주재과학관 상호파견 △韓 · 中과학기술협력센터北京사무소설치△10개 공동연구과제의 내년 착수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 한국의 G7프로젝트와 中國의 火炬계획등 양국의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위한 연구위탁 및 인력공동참여를 추진하고 4개분야 20명규모의 기술조사단을 상호교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월 체결된 韓 · 中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라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대표는 동양의학과 신소재분야, 조력발전해양조사 등 그동안의 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1년간 추진될 양국협력사업의 평가를 위한 제1차 韓 · 中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내년 하반기 北京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공동발표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28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韓 · 中과학기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 科技산실 大德연구단지 준공

## 20년 大役事 매듭 834만평규모 단지造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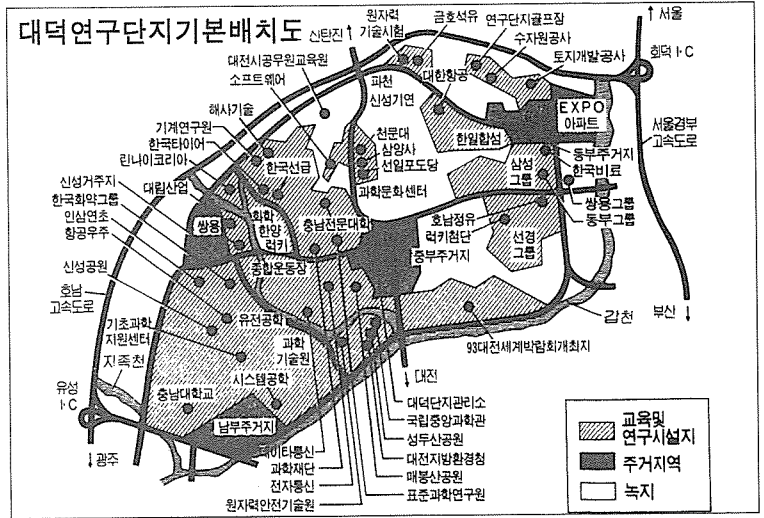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종합연구단지인 「大德연구단지」가 20년간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27일 단지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조성준공식을 가졌다.

盧泰愚대통령과 金鎭炫과기처장관등 8백여명의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준공식은 金鎭炫과기처장관의 단지 조성경과보고에 이어 단지조성 및 연구개발성파에 기여한 18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그리고 盧대통령의 치사순으로 진행됐다.

盧대통령은 이날 치사를 통해 『우리는 2001년까지 과학기술 7대 선진국에 반드시 진입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선진국진입의 국민적역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입국과 과학기술자립을 실현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강조하고 『大德연구단지가 연구개발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다해 우리의 미래가 여기서 창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73년 조성을 시작해 20년만에 준공된 大德연구단지는 大田 儒城區에 위치한 8백34만평 규모로 이중 연구·교육시설지가 51%인 4백22만평이며 주거지는 41%로 69만평이고 나머지는 녹지이다.

현재 이곳에는 지난 78년 3월 첫째로 이전해온 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4개 정부투자기관, 8개 민간기업연구소, 3개 국가



기관 및 3개 고등교육기관 등 모두 33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오는 95년까지 민간기업연구소 23개등 32개 기관이 추가로 입주하면 총 65개기관에 2만여명의 연구원·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단지내 상주인구는 7만여명에 달해 市급 도시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92개국과 20여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大田 EXPO '93」이 내년에 大德연구단지내에서 열리게 돼 이 연구단지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교육의 場도 함께 갖춘 명실상부한 과학기술문화학원도시로서 기능을 갖게 된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단지조성 유공자 1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는데 유공 포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민훈장동백장 = ▲趙成憲 (한국토지개발공사처장) ◇ " 목련장 = ▲沈相律 (한국표준과

학연구원행정관리부장) ▲南壽祐 (한국과학기술원교수) ◇ 국민포장 = ▲安煥吉 (한국토지개발공사 대덕국가공단사업단장) ▲吳君燮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朴萬植 (忠南대교수) ◇ 대통령표창 = ▲姜正極 (한국해양연구소책임연구원) ▲庾成受 (과기처 건축기좌) ▲龍英濬 (大田지방국토관리청행정사무원) ▲沈載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尹碩重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金孝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93년도 事業계획 · 예산(안) 承認

科總이사회, 7개단체 新規加入도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1월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회의실에서 1992년도 제2차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韓國資源연구소 등 신규회원가입을 신청한 7개 단체의 가입을 승인했다.

金始中회장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 ▲ 과학기술정책개발 및 건의 ▲ 학회 육성 및 학술활동지원강화 ▲ 과학기술정보교류 및 국제협력 확대 ▲ 과학기술홍보강화 및 풍토조성 ▲ 상설위원회활동 활성화 ▲ 南北 및 세계 韓民族 과학기술자 유대강화 ▲ 회원단체의 당면과제수렴 ▲ 科總자율성 확립 및 자립기반 구축에 두고 주요 사업으로 ▲ 과학기술정책 조사연구사업 ▲ 학회학술활동 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 과학기술홍보강화 및 풍토조성사업 ▲ 남북민간과학기술협력 및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회의사업 ▲ '93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개최 ▲ 월간「과학과 기술」지 혁신발간 ▲ 회원단체협력사업 ▲ 특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단체 회비조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하고 지난 11월16일 회원단체가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한국터널기술협회(회장 許塹) 한국자원연구소(소장 金東鶴) <사> 한국컴퓨터기술협회(회장 高周相)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徐東烈) 丹菴산업<주>(회장 李景瑞) <주>제철화학(회장 金斗河) 포항도금강관<주>(회장 李世基) 등 7개 단체의 신규가입을 승인했다.

「카메라 自動조절장치」

우수發明展서 대통령상 수상

올해 전국 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카메라의 자동초점조절 광학장치」를 출품한 三星航空(대표 李大遠)이 차지했다.

특허청 주최 발명특허협회 주관으로 12월2일 KOEX에서 개최된 '92우수발명품전시회 시상식에서는 또 「4급질소-치환된 인삼사포닌 에테르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을 출품한 태평양화학(대표 韓東根)이 국무총리상, 「도난 및 화재자동전화신고장치의 응답신호 감지장치」를 출품한 薛奇煥씨(부경전자대표)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을 각각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그밖에도 「모자이크형태의 바다장식재를 제조하는 방법과 그 장치」를 출품한 력키가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66개 우수발명품에 대해 각종 포상이 주어졌다.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三星航空의 자동초점 조절장치는 하나의 렌즈로 카메라의 발광 및 수광기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카메라의 소형경량화를 실현한 발명품이다.

「百聞百答」코너 開設

과학관, 自願봉사자 모집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대중화운동의 하나로 과학상당실인 「과학백문백답」코너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12월1일 문을 열었다.

이 상담실은 하루 평균 5천여명에 이르는 관람객들의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이해 주어 과학인구 저변확대를 꾀하려는데 뜻이 있다.

과학관은 이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요원으로 일할 7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이공계분야에 근무했거나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과 과학기술지식 보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관람객과의 직접상담을 비롯해 서면, 팩시밀리등을 통한 과학관련질문에 응답해주고 신문 잡지 등의 투고란에 전문해설을 담당한다.

## 12월2일 「原子力 점화」 50돌

### 42년 페르미原子爐 실험성공으로 原電실용화

12월2일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원자가 핵분열에 의해 불이 켜진지 꼭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50년전인 지난 42년 이날 美國시카고大에서 일단의 과학자들이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엔리코·페르미가 조립한 원자로에서 1와트의 출력(10일 뒤에는 20와트의 定格출력에 도달)으로 지속적인 핵분열의 연쇄반응에 성공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原子力에 의한 불이 점화된 것이다.

당시 페르미가 조립한 黑鉛減速원자로는 6톤의 금속과 51톤의 산화물로 된 天然우라늄 원료와 4백톤의 흑연감속재로 구성되어 있었다.

페르미원자로의 성공으로 원자폭탄의 길이 열려 45년8월 日本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어 옛 蘇聯과 英國이 48년과 52년에 각각 원자폭탄실험에 성공했다. 원자폭탄에 의해 2차세계대전이 종결되고 5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계최초로 실용화된 원자력 발전소는 英國의 콜더홀발전소(5만Kw급)로 56년에 운전이 개시됐다. 이어 57년에는 美國의 슈핑포드발전소(9만Kw급)가 운전이 들어갔다. 60년

대 초반까지만해도 경제성문제로 原電이 크게 보급되지 못했으나 73년 석유파동 이후 원자력발전소 건설붐이 일어났다.

79년 3월과 86년 4월에 일어난 美國의 드리마일 및 옛 蘇聯의 체르노빌原電사고는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유럽의 몇개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동결시킴으로써 일시 침체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안보를 비롯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과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91년말 현재 세계 28개국에서 운전중인 원전은 4백21기(3억4천2백80만Kw), 건설중인 것은 62기(6천75만Kw)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71년 11월15일에 첫번째 원전인 古里1호기를 착공, 78년 4월29일부터 상업 운전이 들어감으로써 세계 22번째 원전보유국이 됐다. 91년 말현재 운전중인 원전은 9기이며 발전량은 5백63억1천만Kw로 연간 총발전량의 47.5%를 공급하고 있다.

### 國際에너지회의 開催

93년 10월 서울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소장

吳正茂)는 국제에너지재단(IEF: International Energy Foundation)과 공동 주최로 에너지분야의 국제학술대회인 ENERGETEX '93을 1993년 10월 서울 잠실소재 호텔 롯데월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 분야의 과학기술 정보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열리는 ENERGETEX '93은 1982년 캐나다에서 1차대회(ENERGETEX '82)가 열린 이래 이미 4차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ENERGETEX '93의 주제는 「에너지: 새로운 도약의 길」로써, 「미래를 위한 전통에너지 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부제로 하고 있는데 발표될 논문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및 청정기술, 환경보전기술 및 폐기물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정책 경제의 5개 대주제로 원자력 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 전 분야를 포함한다.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 환경처 및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특별후원하고, 국내·외의 우수기관 및 학회가 공동 후원하는 이 학술대회는 내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학술대회와 대전세계박람회 및 대덕연구단지 탐방 등 5일간에 걸쳐 개최되며, 60여국에서 5백여명이 참석, 3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 技術개발지원금 4천억으로 증액

### 綜合기술금융<주>, 내년 사업계획 확정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대표 金昌達)는 내년 중에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자금조달규모를 올해의 1천9백억원에서 2배이상 늘어난 4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KTB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KTB는 기술개발용자의 주요재원으로 기술개발금융채권의 발행규모를 올해 7백84억원에서 2천4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한정되어 온 예수금수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해외차입금을 2백90억원으로 늘렸고 투융자회수 등으로 인한 자금 1천90억원, 복권발행자금 3백90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4백60억원 등을 확보키로 결정했다.

KTB는 이 자금으로 투자리스크가 큰 기업에 장기저리로 지원하는등 기술개발 용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三星電子, D·S램우수공급업체 美 電子전문잡지사 선정

三星電子는 미국의 유력 전자전문잡사인 EBN誌로부터 D램과 S램품목의 우수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모두 9개 부문으로 구성된 집적회로(IC)분야중 三星電子

는 D램 부문에서 美國의 마이 크론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日本의 도시바와 함께 우수공급업체로 인정받았다.

또 S램부문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로 인텔 모토롤라 TI,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 등과 함께 선정됐다.

EBN誌는 연2회 컴퓨터 주변부품 개별소자 IC 수동소자 파워소스등 5개분야 26개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8천명의 반도체 사용업체독자들에게 「어떤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가」라는 앙케트 조사를 통해 각 항목별로 우수공급업체 4개씩을 선정하고 있다.

## 電子波시험技術研

### 情報통신業體 공동설립

중소·중견 정보통신업체는 날로 강화되는 전자과장해 시험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한국전자파시험기술연구소(KEMI, 가칭)를 설립키로 하고 소장에 黃英菊씨(前 전자과학사 대표)를 선임했다.

제일정밀, 콤팩시스템, 태일정밀, 내외반도체, 웨스트시스템, 뉴텍코리아 등 10개 정보통신 관련기업들이 최근 전자진흥회회의실에서 연구소 설립을 위한 발기인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참여업체는 2억원의 자본금으로 경기도 이천에 2백여평규모의 연구소를 마련, 내년 1월중 개소식을 갖기로 했다.

이 연구소의 설립으로 전자과장해검정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중견 업체들은 관련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관련업체가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비용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 에너지機資材展 개최

### 美·日등 12國85業體 참가

우리나라를 포함 美國, 日本, 獨逸등 12개국 85개업체가 참여하는 제18회 「에너지기자재 전시회」가 11월22일 개막, 12월 3일까지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별관에서 열렸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하고 동자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상공부, 건설부, 과기처, 亞·太경협기구(APEC)등이 후원하는데 약 1천5백평 규모에 △보일러 △배관재△보온단열재 △조명기기△태양열 이용기기 △물 절약기기등이 출품됐다.

또한 올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의 실시를 계기로 소비자가 손쉽게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알아보고 선택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을 처음으로 실물 전시했다.